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되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했던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입니다.》 김정은

참으로 가슴벅찬 날과 달들이 이 땅에 장엄히 흘러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병도 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얹세게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지팡한 역사!

이 나라 청년들의 끗구치는 애국의 힘과 열정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벌휘과 기적을 이르세겨운 날과 달들을 뜨거운 투여속에 둘리켜볼수록 결정을 긍휼화 없다.

사람들이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역사의 나날을 삼가 둘리켜보시라.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막아갈 때마다 불타는 심장으로 승리의 물파구를 앞장에서 혜친 열혈의 전사들은 파연 누구들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병도밑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안아온 투사들, 수지, 기술적으로 대비 투수 없는 미 제국주의와의 피어린 전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워 빛나는 승리를 알아온 영웅전사들이 다름 아닌 전세대의 열혈청년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역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대로로를 열어제 깐 영웅적 인 투쟁사에도 이 나라 청년들의 애국심과 기상이 뜨겁게 맹박치고있다.

정녕 우리 조국의 승리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물품에서 자라난 이 나라 청년들의 불멸의 이훈과 빛나는 역사이며 청년들의 무한한 헌신과 헌신으로 청년과 열정으로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을 마련해가는 청년강국의 위대한 역사이다.

하기에 지난 4월 중순 백두산 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청년강국이라고, 백두산 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들의 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증시사에서 백두산 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청년과 열정으로 청년을 키워냈다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만들어 우리 조국을

연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1.26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어린 뜻깊은 친필을 받아았으며 이 나라 청년들이 아닌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증시의 송고한 뜻을 이어 우리 조국을 영원히 청년강국으로 친연히 빛을 뿌리며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8월 깊은 청년질을 찾으며 평양에서 청년경기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멀리 천년시찰의 길에서 축하문을 보내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들의 기쁨을 후덥지 하여주는것인가.

연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끝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둔려운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을 당의 및 융직한 척후대, 익숙부대로 여기시기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여 청년 운동이 나아갈 길을 헤아리 밝혀주시고 새롭을 주제 100년대의 남과 북로 토록 귀중히 여기시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적전장

를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하긴만 우리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밟아온 자그마한 소행도 그들이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열화 같은 청년사랑으로 수놓으시였다.

오늘도 우리 청년과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2차 전국 청년미 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상봉하시면서 불멸의 화폭을 드롭게 돌아보곤 한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 를 아끼없이 바치고 당시 부르는 어려고 힘든 곳으로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질풍과 미풍은 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하시면서 인생의 귀중한 청년시절을 당파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청년들의 청년미 풍선구자들과 청년들에게 열렬한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줄 알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청년들의 조치들은 우리 청년들이 보내온 대가정을 이룬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 아름다운 인간으로 자라고있다.

세계적으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악육강식, 부패탁한 생활풍조로 일관된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범람하

는 속에 민족의 앞날을 펴고나간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육체적으로 파괴되어가고있을 때 이 당시에서는 선군청년문화가 태여나고 선군청년대 학성적 증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생겨나는 자랑찬 현실.

2010 꽃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이 친혈육의 정으로 아지중이에 고수많은 청년들이 수도 평양을 비롯한 모든 도시를 떠나 심심산중의 새로운 시

수산전선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달려가고있다.

그뿐 아니라 외진 산골과 삼미술의 고단에 자원해가며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주고 영예군인들의 영

최고사령관 동지의 별동대, 예비 전투부대인 수백만의 청년대오가 지난 불باء의 위력을 더욱 무서워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청년들이 지난 무궁무진한 힘이 그대로 약동하

는 국력이 되고 그들의 힘찬 밭길을 위해 강성할 데일이 더욱 앞당겨지는것을 제일 두려워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재세력들이 우리 청년들의 사상을 번질시켜보려고 별의별 악행하고 질요한 책동을 벌리고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병도의 손길아래 우리의 청년대오는 보다 강위력한 혁명대로 더욱 빠른 성장강화되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청년들만이 아닌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장 큰 행운이고 영광이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 천만군민은 최후승리에 대해 그처럼 뜨겁고 열렬하게 확신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증시사상을 끌어들이며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은 청년강국으로서의 불폐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영원무궁도록 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영원무궁도록 빛을 뿌리라, 위대한 청년강국이여!

사상강국, 군사강국만이 아니라 청년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 있게 떨치는 불폐의 백두산대국으로 밝혀내여 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가 뜨겁게 맹박치고 있다.

이 나라 청년들의 끗구치는 애국의 힘과 열정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벌휘과 기적을 이르세겨운 날과 달들을 뜨거운 투여속에 둘리켜볼수록 결정을 긍휼화 없다.

사람들이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역사의 나날을 삼가 둘리켜보시라.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막아갈 때마다 불타는 심장으로 승리의 물파구를 앞장에서 혜친 열혈의 전사들은 파연 누구들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병도밑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안아온 투사들, 수지, 기술적으로 대비 투수 없는 미 제국주의와의 피어린 전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워 빛나는 승리를 알아온 영웅전사들이 다름 아닌 전세대의 열혈청년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역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대로로를 열어제 깐 영웅적 인 투쟁사에도 이 나라 청년들의 애국심과 기상이 뜨겁게 맹박치고있다.

정녕 우리 조국의 승리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물품에서 자라난 이 나라 청년들의 불멸의 이훈과 빛나는 역사이며 청년들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으로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을 마련해가는 청년강국의 위대한 역사이다.

하기에 지난 4월 중순 백두산 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강국이라고, 백두산 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청년과 열정으로 청년을 키워냈다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만들어 우리 조국을

연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1.26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친필이 아온 청년들은 청년들이 아닌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여 청년 운동이 나아갈 길을 헤아리 밝혀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의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을 당의 및 융직한 척후대, 익숙부대로 여기시기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여 청년 운동이 나아갈 길을 헤아리 밝혀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의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하긴만 우리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밟아온 자그마한 소행도 그들이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열화 같은 청년사랑으로 수놓으시였다.

오늘도 우리 청년과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2차 전국 청년미 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상봉하시면서 불灭의 화폭을 드롭게 돌아보곤 한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 를 아끼없이 바치고 당시 부르는 어려고 힘든 곳으로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이 헌원한 청년들, 잘 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 모두가 너두도 기록하고 대전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원수님의 비단과 같은 심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하고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펼쳐놓은 원홍땅의 사과풍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선군 11경과 더불어 영원할 인민사랑의 화폭

지난 8월 중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첫 물사과를 수확하기 시작하였다. 풍년사랑으로 원홍땅이 명절처럼 홍성이 는 속에 먼저 수백의 사과가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페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떠들인 수백의 사과를 알뜰이 물리며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 원홍땅을 찾았으시였다.

같은데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를 민족스럽게 비비로시며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편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과일대 풍물은 암암랐다고, 당창건 70돐에 드리는 사랑찬 선물을 편밀하였다고 하시면서 감사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복받치는 격정에 목이 메였다.

지난해 6월 4일 원홍땅에 새겨진 잊지 못할 뜻깊은 사연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오니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사과를 먹이게 되었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회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 애민유산입니다.』

수도시민들에게 사과를 더 많이 보내주시려 이 원홍땅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대규모의 과수농장으로,

세상에 없는 현대적인 파일생산기자로 전면시키도록 풀었는 협진파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 꽂피워주신 선군 11경

을 영원히 빛내이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면서 오늘 또다시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일꾼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이처럼 귀중한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인 농장의 사과나무들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여 생산량을 떨어뜨렸다는 자체감이 가슴을 아프게 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을 떠나가신 후에도 일꾼들의 귀전에서는 그이의 절절하신 융성이 떠날줄 몰랐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는 모든 사업을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사상을 동호하고 빛내여나가는대 지향시켜 사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파일농사가 안되면 농사를 대고 산재질하면서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파일농사를 소경 묻리잡는 것으로 하면 양된다며 따뜻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의 실태는 물론 자기들의 마음속까지 편히 깨닫어보시지 않는가.

사실 농장앞에 제일 큰 애로로 나선것은

사과나무들이 죽거나 생상량이 줄어드는 문제였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 원인을 새 품종의 사과나무들이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 적응되지 못한데서 찾고 당장은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었으나, 대체로 나간다면 해마다 사과생산량이 폭폭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적대책을 찾지 못하자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던 자기들이었다.

소경 묻리잡는 것, 새겨볼수록 자기

들의 정신상태와 일분생가 단미디로

함축되고 지난 시기의 힘침을 정통으로

지켜지적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의 이런

심정을 해아리시고 사과나무들이 죽고 생

산이 떨어지는 원인을 똑바로 찾아 대책

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묘책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사과나무에 대하여 편히 파악하고 꾸우쳐주시는 경애하는 봄철 제자리눈집방법, 어름칠 푸른 가지점방법 등 앞선 기술을 적극 찾아 도입하였으며 열매솎음과 나무노보식도 작기에 질적으로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을 떠나가신 후에도 일꾼들의 귀전에서는 그이의 절절하신 융성이 떠날줄 몰랐다. 뿐만 아니라 많은 풀들이 피어났고 수정률은 폐보였다. 2배이상 높아졌으며 8월에 들어서서는 열매들이 주먹처럼 커졌다.

불수록 멋있고 희한 풍치에서 이것이 정말 내순으로 가쁜 사과밭이 옮은가 믹기 어려울 정도였다.

예상수확고를 판정한 일꾼들은 입을 딱 벌리었다. 단 한해 사이에 정보당 수확고가 2배이상 뛰어올라 수천의 사과를 더 생산하게 되었다. 말그대로 기적이다.

이제는 일꾼들이 편하게 농장을 번쩍 살리겠다.

『원홍땅에 사과봉년이 들었소.』, 찬란의 목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쳐졌다.

봄수수밭에 들어서서서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을 보고 또 보시며 파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나라는 흥할 정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끓어넘치는 흥모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절처주신 선군 11경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해주신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뼈에 새기고 원홍땅을 영원한 청춘파원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본사기자 대명호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경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나

나무에

</div

미술전시회 〈백두의 칼바람〉 개막



미술전시회 〈백두의 칼바람〉이 27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장 중심에는 백두의 눈 보라속에 서게 시는 불세 출의 선군령장이 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화 미술작품들과 습작품들이 전시

술작품이 모여 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뿌려내리고

신군조선의 담대한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태양의 성산 백두산의 응장한 지태를 생동하게 형상화 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미술전시회 〈백두의 칼바람〉은

작품들에 생동한 흐름으로 점쳐 관람자들의 혁명적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고 있다.

조선화 『백두성지』, 『혁명의 전구』, 아크릴화 『백두산의 아침』, 『찾아오는 장군봉』 등의 작품들은 민족의 높이 깃들어 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화하였다.

또 한분의 회색의 천 출렁장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며 그이의 선군령도

를 훌륭하게 말해주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워업을 기어이

완성해 나갈 인민군군인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조선화 『백두초병』, 유화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반영되어 있다.

미술 전시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고

귀한 사상정신적 유산이며 조선

의 영원한 정신력인 백두의 혁

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

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주동

하게 될 것이다.

청년 절경축 평양시 청년 학생들의 야회 진행

청년 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청년 절경축 청년 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28일에 전개되었다.

공연장소인 청년중앙회관에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로서의 크나큰 길지와 지팡을 안고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는 관람자들의 기쁨이 넘쳐있었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 혼성2중창 『우등봉』,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혼성중창 『전선행렬』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시이야기 『위대한 태양의 품』 등에서 청년중시를 향유한 활약으로 부강하는 청년 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뿐만 아니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주동하게 될 것이다.

백두산칼바람에 둑을 달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푸른바위 내달리는 열렬청춘들의 전투적기백과

그 땅에 헌신한 어온금독주와

방창 『젊음은 급행열차』, 재담 『청춘의 이룸』, 남성기타5명창 『우리 앞날 밝다』 등의 종목들

우리 앞날 밝다』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졌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역사적인 로씨야 씨비리 및 원동지역방문 4돐 기념행사

로씨야에서 진행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역사적인 로씨야 씨비리 및 원동지역방문 4돐 기념행사

로씨야에서 진행

인간사랑의 미풍이 더 활짝 꽂펴나는 사회주의 나라가 제일

한 처녀의 밝은 모습에 비낀 사랑과 정

위 대 한 명 도 자
김 정 일 동 지 켜 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 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사랑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 연구소의 외파입원실로는 강동군 속초로 풍자구에서 사는 엄향순이 들어왔다. 갑상선기능증진증에 걸린 그의 상태는 매우 좋았다. 숨차기가 잇랄 때 까지 되어 걸을 때도 제대로 걸지 못하였다. 목에는 주름만 한 갑상선증대가 있었고 눈알도 두드러져나와 시력장애를 심히 느끼고 있었다.

처녀는 사람들을 미주 대하기가 부끄러워 머리를 수그리고 의료일군들이 물은 말에 짧았지만 대답을 주고 하였다. 당시 향순의 몸은 아직은 수술적용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미 석달동안의 암물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톡이 성체질이라 저처한 선생이 보이지 않았다.

의료일군들은 이런 경우의 수술이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환자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온 마음에 신동으로 소문났다는 향순의 나이는 이제 겨우 18살,

최경태 내분비연구소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그날밤 외과 파장 위영란동무는 잠들 수가 없었다. 환장시절의 고온 목소리와 시력을 잊은 채 꿈 많은 처녀시절을 펴로 음속에 대 한 수술은 차치 잘못하면 대 출혈은 물론 언어 및 호흡장애, 신경신경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학계에서 의외로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 인정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파장 들어선 파장은 놀랐다. 향순이와 같은 나이 또래의 의사식이 있는 의사 박은철, 담당의사 백철학, 마취의 이석준증후군들이 환자의 치료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무게있게 울었다.

《우리들 중에 생명이 경각에 이른 자식의 운명을 두고 속수 무책으로 앉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최단기 간내에 수술을 해야 하며 하되 성공을 해야 합니다.》

《파장선생님, 결심을 내리실 시오. 우리야 지난 10여년을 그렇게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좋은 성과를 거두어 후대들이 받아보게 될 기성문인을 우려의 손으로 만 들이 봅니다.》

되어어 말을 받는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힘을 주고 하는 의사 박은철동무였다.

그로부터 한달 후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엄향순동무는 그토록 바빠서 자기의 밝은 목소리와 밝은 눈동자를 다시 찾았다.

한 평범한 동료의 말을 위해 연구소의 의료집단이 바쳐온 노력과 정성은 얼마나 뜨거운 것

이었던가.

임상현황은 길지 않아도 퍼 그러나 학구적인 한 의료일군의 말이었다. 보다 심사숙고 하자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었다.

의료사업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또 순간의 실수도 허용해

서는 안되기에 그 어느 부문보

다. 그중에서도 한때 기성문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의료일군의 마음속 충격은 대 커졌다.

그날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고 한다. 내 한생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의료일군들의 첫째가는 지침으로 암고 살리려고.

뜻밖의 병으로 침상에 누워 면회를 오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온갖 성의를 다한 갑상선연구소 연구사 리현동무와 외파의 의사, 간호원들,

그나마 파장 위영란, 간호장리성 유통동무들은 임박을 돌아구어 주기 위해 집에서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왔고 담당의사 백철학동무는 천아비지의 삶을 막 모습으로 잣장을 향한 두술을 입에 떨어뜨렸다.

듯깊은 명절날마다 의사, 간호원들은 누구나 없이 그의 집을 찾고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토론탈 일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의료일군들을 찾아온다는 험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듯깊은 명절날마다 의사, 간호원들은 누구나 없이 그의 집을 찾고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토론탈 일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의료일군들을 찾아온다는 험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듯깊은 명절날마다 의사, 간호원들은 누구나 없이 그의 집을 찾고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토론탈 일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의료일군들을 찾아온다는 험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우리는 취재가 끝난 후 이곳 외파의료집단의 소행을 단은 어려움의 편지를 듣는 것은 감동속에 읽어보았다. 그중에는 10여년 전에 이곳에 수술적치료를 받고 퇴원한 만경대 구역 갈림길 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함성일통무의 편지도 있었다.

어지러운 파거력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침략과 전쟁, 살육에 미쳐 날뛰던 일제의 폐암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많은 것이 변하였다. 산천도 변하고 시내도 달라졌다.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 2차 세계대전시기 적대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불미스러운 파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원우호, 평화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은 조일관계이다. 다같이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이웃인 조일 두 나라는 옹당 가짜나 되어야 하겠으나 아직까지도 가깝고도 먼 나라로 되어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찍어말하면 일본이 파거청신을 회피하고 있는데 있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천주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나라이다.

파거 일본이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행동과 고통은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 할 수 없다.

파거 일본은 조선민족을 멸족시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을 탑치, 유비, 강제행여 전쟁터에 끌고나가면서 청노에 생활을 강요하였으며 수많은 청장년들을 고역장들과 전쟁터에 내몰아 생을 당해하였다. 저들의 식민지 통치에 불용한다 고 하여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범죄적 만행도 감행하였다. 지어 『창씨 개명』과 『황국신민화』를 만들며 조선 사람의 말과 글, 이름을 폐하고 민족의 네까지 말살하려고 밀약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인민이 대대로 물려온 귀중한 문화유산들과 수많은 자연부원들을 닥치는데로 끌락해갔다. 나중에는 술 가락과 밥그릇까지 빼앗아갔다.

력을 사용해 커버면 파파와 땅탕을 전으로 삼은 침략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술가락까지 빼앗아간 데는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에 의해 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부단할 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것을 인정하고 셋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자기의 죄과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나라사회의 관계에서도 미친가지이며, 때문에 잘못된 파거 청신하는 것은 하나의 국제판에 되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죄를 지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파거죄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그 어려운 절제조건도 시비도 있음을 더해졌다.

일본의 파거 청신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인차 해결되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새기를 넘기며 오늘까지 미처 남아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력들이 파거를 청산하고 옮겨온 길로 나가려는 자국인민들의 의사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일본은 이렇게 자기의 죄은은 파거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해보려고 모지를 쓰고 있다.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이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국제 사회의 한 성원으로 떠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필승불패의 무적강군

조선인민의 첫 자주를 새기신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 각하의 선군

평도의 철학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 일성 주석께서 와

김정일 각하께서 창시 하시고

침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 선군

사상이 있었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국주의자들과 종업원

들은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민을

펼쳐왔다. 미국은 무장간첩선

『루이비통』호 사건, 『EC-121』

재개전에 협박해온 등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회복시켰지만 그때마다 조선의

단호한 대응과 강대한 군력에

길집하여 굴복하지 않았다. 조

선은 뱙족제격까지 갖축으로써

미국의 액체위협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정일 각하께서 더욱

영화를 통하여 조선이 적세

력들의 압착동파 제재속에서

도 오늘과 같이 강한 국력을 가

진나라로 된 비결이 선군정치

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려움에 굳게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리라고 믿

는다.

* * *

선군절에 즈음하여 기네군 알

미씨 쏠리 풀로벌에 이란 아

이란 아이아이회사에서 18일과 19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들에게는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 『강성대국의

불로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

화들이 상영되었다.

기네군 알미리 쏠리 풀로벌

영 제 1주공대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선군절에 즈음하여 따위스만공산당에서는 경축모임이, 망글리메슈 선군정치연구소조에서는

임직토론회와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말레이시아 애리풀리 글로벌 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20일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 중이 참석하였다.

파거 청산은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슨 선사품이 아니다. 피해자인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에 파거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본은 그것을 무조건 실행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

일본은 일본의 경계선을 위한 길이다. 지금 일본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파거 청산을 외포하여 파거 청산을 기울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통하여 조선이 적세력들의 압착동파 제재속에서

도 오늘과 같이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된 비결이 선군정치에 있다.

앞으로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일 각하께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무적의 조선인민군과 위력한 국방군이 있기에 조선은 미국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란 아이아이회사 장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화를 통하여 조국에 방송전쟁을

을 승리에 이르기 위해 한

김정일 각하께서 더 옥고를 치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 『강성대국의

불로비리를』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

화들이 상영되었다.

기네군 알미리 쏠리 풀로벌

영 제 1주공대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1960년 8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은 앞으로도 필승불패의 무적강

군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칠 것이다.

망글리메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 일성 주석께서 와서

김정일 각하께서 창시 하시고

침화발전시키는 주체사상, 선군

사상이 있었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국주의자들과 종업원

들은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민을

세워져 있다.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선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무료 교육제도에 의해

모두가 품을 갖추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안전과 건강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도 용당한 관심이 둘러지고 있다.

정부의 시책 속에 나라의

곳곳에 풍물에 대한 친목을

갖고 있다.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화발전되는 조선꾸바친선협조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에 외교관

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조선

꾸바친선관계 발전에서 역사적

기회로 되었다.

두 나라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반제자주, 사회주의

의 철학을 통해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정체된 철학으로 일본과 미국을

맞대고 있다.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꾸바인민은 꾸바공화국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공청대표

들이 참가한 가운데 꾸바공산주

의 청년동지회 제 10차대회가

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정체발전의 요구

에 맞게 새 세대들의 역할을 더

욱 높이며 그들이 투철한 사상

과 각각의 철학으로 대회에

참여하였다.

교육부 보건분야에서도 홍통

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부 보건분야에서도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꾸바는 세계 생활장으로

들어온